

2018년 제4차 운영위원회 회의록

▣ 일 시 : 2018. 12. 11.(화) 11:30-12:30

▣ 장 소 : 메이탄

▣ 참석자 : 최복수, 권양숙, 김호경, 김덕숙, 임효연, 전용한, 서문석, 장정희, 김경집 (9명)

▣ 배 석 : 이선옥 부장, 배은정 과장, 정유정 과장, 최진열 대리(4명)

▣ 회의내용

1. 성원보고

김경집 관장이 9명의 운영위원 전원 참석에 대해 성원보고하다.

2. 개회

4차 운영위원회 성원 보고됨을 확인하고 최복수 위원장이 2018년 제4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언하다.

3. 신임 운영위원 소개 및 위촉장 전달

최복수 위원장은 신임 운영위원으로 장정희 위원, 서문석 위원을 소개하고, 장정희 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다.

4. 전 회의록 서면 검토

위원장이 전 회의록의 가납여부를 묻자, 전용한 위원의 동의와 김덕숙 위원의 재청으로 가납되다.

5. 4분기 사업보고

이선옥 부장이 4분기 사업 및 실적에 대하여 사전에 배부한 사업보고서를 참고하여 구두로 보고하고, 청년통장을 포함하여 본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서울형 자산형성사업이 5년 연속 최우수 사례관리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모범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다고 말하다.

최복수 운영위원장이 4분기 사업 내용과 주요행사에 대하여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 지지하다.

6. 2018년 2차 추경예산(안) 보고

이선옥 부장이 2018년 예산 대비 감액된 추경에 대하여 설명하다. 세입은 교육문화 프로그램 및 아동발달센터 사업비등의 증감에 대해 설명하다. 세출은 세입의 변화에 따른 증감이 발생된 부분을 보고하다.

최복수 위원장이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대해 질의사항 여부를 묻자 전용한 위원이 비지정 후

원금이 4분기 사업보고 금액과 상이함에 대해 질의하다. 김경집 관장이 물품후원 중 엑소CD와 같이 대량 입고될 경우 금액으로 환산하여 후원기금에 합산되었고, 기존 데이터를 기준으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 오차가 남을 답변하다. 더불어 수입이 크게 감소된 이유로는 사회교육의 경우 정원대비로 계획하여 허수가 발생한 부분을 축소시켰음을 답변하다.

최복수 위원장이 2018년 2차 추경예산에 대한 가납여부를 묻자, 임효연 위원의 동의와 김호경 위원이 재청하다.

7. 2019년 예산(안) 보고

이선옥 부장이 세입, 세출 예산 편성에 대해 보고하다. 2019년도 교육문화사업 확대와 2018년도 외부지원사업 종결에 따라 전체 예산이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 보고하다.

최복수 위원장이 올해 찾동 관련 복지팀 인원이 추가된 상황에 대해 묻자, 서문석 위원이 서울시에서 내년에도 인력을 추가할 예정이나 타구에 비해 우리 구는 인원이 적어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힘들어 한다며 현재 구청장이 관심을 갖고 총무과에서 검토 중이라고 답변하다. 이에 최복수 위원장이 복지팀 인원은 계속 증가하는데, 인력활용을 잘하지 못한다면 서울시의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라고 설명하다. 김덕숙 위원은 동별 회장단 모임에 나가서 복지팀 인력 증가에 따른 만족도를 공유한 결과 높지 않다고 추가로 설명하다.

최복수 위원장이 2019년 예산에 대한 가납여부를 묻자, 권양숙 위원의 동의와 전용한 위원이 재청하다.

8. 질의응답

김경집 관장이 임효연 위원에게 올해 실시한 사업에 대해 각 팀별로 수퍼비전을 요청하다. 임효연 위원은 올 한해 직원들이 열심히 수행하였는데, 실무자들은 어떤 만족을 느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하다. 정유정 과장(사례관리팀)은 찾동사업을 통해 구청과 주민센터 담당자들과 매우 친밀해진 점, 최진열 대리(서비스팀)는 올해 팀 구성원이 많이 바뀌었지만 신규 사업을 통해 지역 사회에 영향을 많이 미쳤던 점, 배은정 과장(지역조직팀)은 많은 동아리모임이 있는데 그 중 나눔 이웃 활동팀이 구성된 부분에 대해 답변하다.

9. 폐회

최복수 위원장이 12:30에 2018년도 제4차 운영위원회의 폐회를 선포하다.